

날은 **동백로장조**



봉오동전투
102주년 기념호



봉오동전투 전승 102주년 기념식

2022년 6월 7일 15시 국회도서관 대강당 (사)이천동백로장군기념사업회(이사장 국회의원 우형식) 후원: 국가보훈처



날은 홍범도장군

VOL. 31

발행인 우원식
편집인 홍순계
편집위원장 김용환
편집위원 박석봉, 정광균, 정우기, 김우진, 한동건, 김현식, 김유림
발행처 (사)여천홍범도 장군기념사업회 03035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 10길 17
전 화 02-784-3601
팩 스 02-6788-6790
창간일 2014년 8월 15일
홈페이지 www.hongbumdo.org
비매품

봉오동전투 전승 102주년 기념식

· 봉오동전투 전승 102주년 기념식	02
· 기념사 (우원식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장)	03
· 축사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장호권 광복회장, 이종찬 명예이사장)	04

특집기고

· 봉오동 전투의 역사적 의의 (이상훈 육군사관학교 군사사학과 교수)	07
· 연해주로의 이주와 민족운동의 전개 (반병률 한국외대 사학과 명예교수)	10

독후감 공모

· 부끄러운 고백 (고등부 최우수상 허경서)	16
--------------------------	----

고려인 동포 서울 역사·문화 투어

· 고려인 동포 서울 역사·문화 투어 체험수기	19
---------------------------	----

회원투고

· 대전 국립묘지 홍범도 장군 묘지에 홍상을 건립하자! (황원섭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부이사장)	23
---	----

기념사업회 소식

24





봉오동전투 전승 102주년 기념식

2022년 6월 7일 15시, 국회도서관 대강당 | (사)여천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이사장 국회의원 우원식) 후원: 국가보훈처



봉오동전투 전승 102주년 기념식

기념식 개요

- | 일시 | 2022년 6월 22일 15시
- | 장소 | 국회 도서관 대강당
- | 주최 | (사)여천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 | 후원 | 국가보훈처
- | 식순 |

구분	내용
사전영상	‘승리의 기억 봉오동전투’(국방TV)
국민의례	
기념사	우원식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장 ·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축사	· 장호권 광복회장 · 이종찬 명예이사장 · 어린이 노래그룹 작은 평화 · 이진영 · 이종원
기념공연	· ‘날으는 홍범도가’ · ‘독립군유고문’(낭송) · ‘압록강 행진곡’
제창	독립군가



기념사



우원식 (사) 여천 홍범도장군 기념사업회 이사장

올해 기념식은 홍범도 장군을 고국에 모시고 하는 첫 번째 기념식이라 그 의미가 큼니다. 지난 1년 정말 잊지 못할 한 해를 보냈습니다. 국민적 염원이자 기념사업회의 숙원사업이었던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고국으로 모셨습니다. 늦었지만 그토록 원하던 광복을 이룬 조국으로 113년만에 돌아오셨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당당한 나라, 대한민국은 최고의 예우를 갖춰 홍범도 장군을 모실 수 있게 되어 너무나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102년 전 만주 땅에서 일어난 봉오동, 청산리전투 모두, 우리 독립군과 일제가 당당하게 무력으로 맞붙어 싸워 이긴 자랑스러운 우리의 독립전쟁이었습니다. 독립전쟁에서 이뤄낸 승리는 독립운동의 역사에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일제 식민지배로 고통받던 민족에게 자신감과 자부심을 심어주었고, 만주 지역 독립군의 저력을 실감케 했습니다. 이후 만주는 독립운동의 최전선이 되었으며, 만주 독립군 청년들은 1940년 한국광복군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독립전쟁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과 계승작업은 대한민국 헌법정신과 국군의 역사적 뿌리를 제대로 확립하는 일이며, 반쪽짜리 우리 역사를 완성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봉오동 전투 102년을 맞이하면서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는 다음과 같은 일에 역점을 두겠다는 것을 다짐합니다.

첫째,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스러져간 많은 잊혀진 독립전사를 찾아내고 걸맞는 예우를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수많은 독립군과 광복군은 우리 군의 역사적 출발점입니다. 청산리·봉오동 전투의 영웅이라 불리는 홍범도, 김좌진 등 지휘관들은 공적을 인정받았지만, 전장의 최일선에서 싸우다 전사한 독립군들에 대한 연구 및 발굴뿐 아니라 그 예우 또한 여전히 부족합니다. 독립군들을 더 이상 잊혀진 영웅으로 남겨두지 말아야 합니다. 명예뿐인 보훈에 머물지도 말아야 합니다. 잊혀진 독립운동가를 찾아내 늦지 않게 후손들이라도 보듬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발굴하고 최고의 존경과 예의로 보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는 독립전쟁의 무명 독립용사들을 기념하고 추모하는 기념관과 공원 조성에 더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특정한 전쟁의 영웅을 기억하는 것을 넘어서 어제의 농사꾼이 오늘은 독립군'이 되었던 우리 주변의 평범한 사람들, 평범함 속 용기들이 하나 둘 모여 위대한 희망을 만들어간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기억하고 계승하는 '모두의 공간'으로 기념관과 함께 독립전쟁기념공원을 반드시 조성하겠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값진 피로 일군 호국영령을 기리는 일만큼은 시대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더라도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은 나라의 이름을 지키고, 나라를 되찾고, 나라의 부름에 기꺼이 응답한 분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서 있습니다. 그 희생과 헌신에 제대로 보답하는 나라를 만들어가야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102년 전 함께 만들어 낸 독립전쟁의 희망의 승리를 자랑스럽게 기억하고 싶습니다. 기념사업회가 작은 밑알이 되어 독립운동가의 정신과 뜻을 기리고 자랑스러운 역사를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은 우리 민족의 항일독립전쟁 역사에 빛나는 전과로 영원히 기억될 봉오동 전투 전승 102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먼저, 오늘 기념식을 준비해주신 여천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우원식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02년 전 오늘, 만주 봉오동에서 홍범도 장군이 이끄는 우리 독립군 연합부대가 일본 정규군을 상대로 역사적인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3·1운동 이후 일제는 우리 민족을 가혹하게 탄압했지만 독립을 향한 선열들의 의지는 결코 꺾이지 않았습니다. 만주 지역에 대한독립군, 북로군정서 등 50여 개에 달하는 독립군 부대가 결성되었고, 본격적인 무장 독립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일제는 반격에 나서 제19사단 병력과 남양 수비대를 이끌고 독립군의 본거지인 봉오동을 공격해왔습니다. 이에 홍범도 장군이 이끄는 독립군 연합부대는 병력과 무기의 열세를 극복하고 치밀한 계획으로 일본군을 삼면에서 포위하여 압도적인 전승을 거두었습니다.

그해 독립신문은 봉오동 전투를 ‘일본군 사살 157명, 독립군 전사 4명’의 쾌거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항일 독립전쟁 최초의 대규모 승리였으며, 3·1운동으로 들불처럼 타오른 우리 민족의 조국 광복을 향한 간절한 열망이 마침내 일구어낸 희망의 불꽃이었습니다. 봉오동 전투의 빛나는 승전으로 독립군의 사기가 크게 진작되었고, 무장 투쟁은 더욱 활발히 전개되어 그해 10월, 청산리에서 또 한 번의 기적을 만들어 내며 일제를 응징하고 우리민족의 독립의지를 만천하에 천명할 수 있었습니다. 봉오동 전투의 승리는 국권침탈의 철혹 같은 절망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우리 민족의 강인한 의지와 불굴의 독립정신을 보여준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우리는 홍범도 장군님을 비롯한 봉오동 전투 승리의 주역들과 무명의 독립투사로서 자신의 삶을 기꺼이 바치신 애국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어떤 무자비한 탄압이 있을지라도 평범한 사람들의 용기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금지와 자부심을 미래 세대에 계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기념식이 봉오동 영웅들과 애국선열들의 업적과 정신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기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장호권 광복회장

‘홍대장이 가는 길에 일월이 명랑한데,
왜적 군대 가는 길에 비가 내린다.
왜적 군대가 막 쓰러진다.’

이는 여천 홍범도 장군님의 활약상을 노래한 ‘날으는 홍범도가’의 첫 소절입니다. 오늘 봉오동전투 전승 102주년을 맞이하여 장군님을 비롯한 독립군 선열들의 뜨거웠던 애국심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아시다시피, 봉오동 승첩은 장군의 휘하부대와 안무 장군의 부대, 최진동 사령관의 부대를 ‘대한북로독군부’로 통합하고 두만강을 건너 국경을 넘어온 일본군 부대를 봉오동 골짜기로 유인하여 섬멸한 역사적인 대사건이었습니다. 이 승첩은 만주와 연해주를 비롯하여 이국 땅 전역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무장 투쟁의 서막이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전투에서 값진 승리로 우리 독립군의 사기는 크게 진작되었고, 청산리 대첩과 대전자령 전투를 비롯한 크고 작은 전투에서 일본군을 무찌르는 견인차 역할을 하였습니다.

저는 특히 장군께서 초기에 활약하셨던 함경도 일대 민초들 사이에서 불려졌던 ‘날으는 홍범도가’의 존재에 주목합니다. 장군의 의병부대가 펼쳤던 항일전을 찬미하는 이 노래의 가사는 자료적 가치는 물론, 장군의 활약상이 얼마나 비범했고, 신출귀몰했으며 일제의 간담을 서늘케 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이런 노래까지 지어져 민초들이 불렀다는 것은, 그 당시 독립투쟁에 기대를 거는 민초들의 여망이 얼마나 절실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헤아려 보면, 지난 2005년 기념사업회가 창립된 이후 어려움 속에도 많은 분들께서 힘써 주셨고, 지금도 많은 일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나해에는 숙원사업이었던 홍범도 장군님의 유해를 중앙아시아의 머나먼 이국 땅 카자흐스탄에서 대전현충원으로 모셔 와서 우리 땅에 안장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를 계기로, 남북교류의 매개체가 되어 향후 남과 북이 공동으로 봉오동 전승을 재조명함으로써 그동안 주목받지 못한 만주 독립군의 진면목을 살필 수 있는 때가 빨리 오기를 소원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기념행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하며, 기념식 준비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홍범도장군 기념사업회 우원식 이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축사



이종찬 명예이사장

박만식 국가보훈처장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 그리고 여천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념사업회 명예이사장 이종찬입니다. 부득이한 일정이 있어 참석하지 못하고, 영상을 통하여 축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양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독립전쟁사상 가장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가진 봉오동전투 전승 102주년 되는 날입니다. 봉오동전투는 우리 독립군이 일본의 정규군과 정면으로 대결하여, 최초로 대승 을 거둔 독립전쟁의 제1호로 평가를 받은 자랑스러운 전투였습니다.

봉오동전투를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진 전투로 평가하는 까닭은 첫째, 이 전투에는 홍범도 장군의 부대 뿐만 아니라, 최진동 장군이 지휘하는 군무도독부와, 안무 장군의 국민회군 등 독립군 연합부대가 일본 정규군을 제압 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봉오동전투는 독립군과 후방에 있는 우리 국민들이 한데 뭉쳐 전승을 이룩했기 때문입니다. 독립군이 사용한 무기는 우리 국민들이 독립군 무장을 위하여 돈을 모아 당시 체코 군단의 무기를 대량으로 구입하여, 소만 국경에서 왕청현까지 등짐을 지고 운반하여 독립군이 무장한 것입니다. 당시 독립군이 무장했던 모시나강 소총은 일본군의 무기보다 성능이 우수하여 일본군을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모시나강 총은 현재 남산에 있는 우당 이회영 선생 기념관에 전시되어 있으니, 기회가 되시면 관람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봉오동전투는 일본 정규군인 19사단 73연대 월강 추격대대인 일본 최강의 전투부대와 싸워 승리한 것 입니다. 의병 전쟁 중에 일제의 소부대와 격전이 있었으나, 대부대와 싸운 것은 봉오동이 최초였습니다. 김일성이 자랑 하는 보천보 전투는 일본 주재소를 습격하여 일시 점령했던 사건입니다. 독립전쟁 과정에서 일본 정규군 대부대와 싸워 승리한 것으로 봉오동전투와 10월의 청산리 전투가 대표적인 업적입니다.

오늘 봉오동전투 전승일을 맞아, 우리 국군이 독립군을 계승하여 군이 정병주의 노선을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독립운동 정신이 국군의 강인한 정신적인 토대가 되어야 합니다. 봉오동전투 전승 기념행사를 준비하신 우원식 이사 장을 비롯한 기념사업회 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참석하신 내빈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특집 기고

봉오동 전투의
역사적 의의

이상훈 육군사관학교 군사사학과 교수

봉오동 전투의 위상

영화 <봉오동 전투>가 2019년 8월에 개봉했다. 봉오동 전투의 승전 100주년이 되는 시점이다. 영화에서 황해철 역을 맡은 유해진은 이렇게 말한다. “독립군 수는 셀 수가 없어. 웬지 알아? 어제 농사짓던 인물이 내일은 독립군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야.” 당시 일제로부터 독립을 꿈꾸던 우리 민족의 강한 의지와 희망을 엿볼 수 있다. 봉오동 전투는 1920년 6월 7일 봉오동에서 독립군과 일본군 사이에 발생한 대규모 교전이다. 일본군이 봉오동의 독립군을 토벌하기 위해 두만강을 건넜다가 독립군에게 크게 패한 전투다.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 승리하며 아시아에서 패국지세로 세력을 확장하던 일본군에게 충격을 안겨주었다. 봉오동 전투에 대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군무부(軍務部)는 “일본군 전사자 157명, 중상자 200여 명, 경상자 100여 명이며, 아군 전사자 장교 1명, 병사 3명, 중상자 2명이다”라고 발표했다. 1920년 12월 25일 「독립신문」 제88호에 수록된 내용이다. 중국 신문인 「상해시보」에는 “당시 전사자가 150명, 부상자가 수십 명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강을 건너 도주하였다”라고 기록했다.

봉오동 전투 이후 일본군은 독립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적(독립군)은 전부 러시아식 소총을 가지고 탄약 또한 상당히 휴대하여 배낭과 같이 지고 있었다. 여기에 모포를 둘러 그 내부에는 탄약·일용품·서류 등을 넣었는데, 양식(糧食)을 넣은 것은 보지 못하였다. 그리고 사격 훈련에 전념하고 있었다. 지형에 근거하여 방어할 때는 상당한 전투력을 가지고 용감하게 싸웠다.” 일본군의 봉오동 전투 패배는 독립군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독립군을 단순한 ‘오합지졸 무장폭도’가 아니라, 군복을 입고 무기와 장비를 갖춘 정규군 수준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일본군은 만주지역의 독립군을 대대 적으로 토벌하기 위해 ‘간도지방불령선인초토계획(間島地方不逞鮮人剿討計劃)’을 추진하게 되었다. 1920년 10월에 발생한 청산리 전투를 예고했던 것이다.

봉오동 전투의 배경

1919년 3.1운동이 거국적으로 발생했다. 우리 민족의 독립 열의가 반영된 사건이다. 3.1운동 이후 만주에 서는 무장독립투쟁을 위한 움직임이 가속화되었다. 소규모로 활동하던 독립군 조직들이 통합하거나 연합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1920년이 되면서 독립군의 전투력이 강화되고 독립전쟁의 분위기는 더욱 고조되었다.

1920년 5월, 북간도(北間島)에는 여러 무장독립운동 단체들이 모여들었다. 북로군정서, 국민회, 군무도독부, 신민단, 광복단, 의군단 등이다. 5월 28일 홍범도 부대, 최진동 부대, 안무 부대가 연합해, 대한북로독군부로 재편되었다. 봉오동(鳳梧洞)이 바로 이들의 근거지였다. 봉오동은 두만강 중하류에서 북쪽으로 40리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봉오동은 한인마을로 크게 하촌(下村), 중촌(中村), 상촌(上村)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봉오동 자체가 길고 큰 계곡이었다. 계곡 지형이라 방어에 유리하고, 산길을 따라 각지로 연결되는 장점이 있었다. 또한 막대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던 최진동이 재정과 보급을 지원할 수 있어서, 자연스럽게 독립군의 거점이 되었다. 봉오동을 중심으로 대한북로독군부는 체계적으로 편성되었다. 부장(府長)은 최진동, 부관(副官)은 안무였으며, 북로제1군사령부의 부장(部長)은 홍범도, 참모(參謀)는 이병채, 향관(餉官)은 안위동 등이었다. 봉오동 전투가 발생하기 직전인 5월말 봉오동에는 무장한 독립군 수백명이 집결해 있었다. 이러한 정황은 일본 군에게도 상세히 보고되었다.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독립군과 일본군의 긴장감이 고조되기 시작했다.

1920년 6월 4일, 독립군 약 30명이 남쪽으로 두만강을 건넜다. 이들은 종성군 강양동의 일본군 국경 순찰대를 공격하고 복귀했다. 독립군의 행동을 예의주시하던 일본군은 곧바로 진압부대를 편성했다. 일본군 제19사단 예하의 니이미 지로(新美二郎) 중위가 지휘하는 남양수비대(南陽守備隊)였다. 6월 5일, 약 30명에 달하는 니이미 중위의 남양수비대는 북쪽으로 두만강을 건넜다. 이들은 두만강변의 한인마을이 있던 삼둔자(三屯子)를 습격했다. 독립군은 일본군을 매복 공격한 후 다시 북쪽으로 철수했다.

봉오동 전투의 전개

남양수비대만으로는 독립군을 공격하기에 역부족이었다. 일본군은 봉오동에 위치한 독립군의 근거지 자체를 소탕하고 싶었다. 결국 야스카와 사부로(安川三郎) 소좌가 지휘하는 '월강추격대(越江追擊隊)'가 새롭게 편성되었다. 월강추격대는 강을 건너 독립군을 추격하는 부대라는 의미다.

6월 6일, 야스카와 소좌의 월강추격대는 온성군 남양에 집결했다. 우리측 기록에는 병력 400~500명, 일본측 기록에는 200여 명이다. 이들은 밤 9시가 되자 본격적으로 두만강을 건너기 시작했다. 도하는 다음날 새벽 3시까지 이어졌다. 6월 7일 새벽, 두만강을 건넌 야스카와의 월강추격대와 니이미의 남양수비대는 안산(安山) 일대에서 합류했다. 이들은 북쪽으로 이동하던 도중 안산 후방 마을에서 독립군과 교전했다. 일본군이 봉오동으로 북상해 오는

상황은 독립군에게 속속 전달되었다. 독립군은 봉오동 마을의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병력은 상촌(上村)의 연병장에 집결시켰다. 봉오동 상촌 일대를 결전의 장소로 선정하고, 주위 고지에 매복하기로 했다. 제1중대장 이천오는 상촌 서북단에, 제2중대장 강상모는 동산(東山)에, 제3중대장 강시범은 북산(北山)에, 제4중대장 조권식은 서산(西山) 남단에 배치되었다. 홍범도는 2개 중대를 거느리고 서산(西山) 중북단에 자리잡고, 연대부속 장교 이원은 본부와 잔여부대를 거느리고 서북 산간에 대기했다. 신민단 병력들은 상촌 남쪽 산록에서 전투 준비를 했다. 독립군이 매복을 준비하고 있을 무렵, 일본군은 봉오동 어귀로 들어서고 있었다. 6월 7일 아침 8시 30분 무렵, 일본군은 봉오동 하촌부터 수색을 시작하며 양민을 학살했다. 하촌에서 중촌을 거쳐 상촌 방향으로 올라왔다. 일본군은 3~4시간에 걸친 수색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독립군의 그림자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6월 7일 정오 무렵, 야스카와의 월강추격대가 봉오동 상촌으로 진입하고 있었다. 20여 분 후, 드디어 월강추격대가 상촌에 다다랐다. 바로 그때 갑자기 상촌 주위 고지 사방에서 총알이 날아들었다. 매복하고 있던 독립군의 공격이었다. 독립군은 월강추격대와 4시간에 걸쳐 치열한 총격전을 벌였다. 결국 월강추격대는 큰 피해를 입고 봉오동 상촌에서 물러나고 말았다. 오후 4시 무렵, 폭우가 쏟아지고 시야가 제한되었다. 이를 틈타 일본군은 남쪽 유원진(柔遠鎭) 방향으로 서둘러 철수했다. 철저히 준비한 독립군의 승리였다.

봉오동 전투의 승패

독립군은 봉오동 전투에서 일본군의 '불령선인단(不逞鮮人團) 섬멸'이라는 전투 목적을 좌절시키고 승리했다. 그런데 독립군과 일본군 사이에는 전과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군무부 발표에는 "일본군 전사자 157명, 부상자 300명이며, 독립군 전사자 4명, 부상자 2명"이라고 되어 있다. 반면 일본측 기록에는 "일본군 전사자 1명, 부상자 2명이며, 독립군 전사자 24명, 부상자 다수"라고 되어 있다. 일본측 기록의 준거가 되는 자료는 <봉오동부근전투상보(鳳梧洞附近戰鬪詳報)>다. 봉오동 전투에 직접 참가했던 야스카와 소좌가 전투 이후 작성한 보고서다. 봉오동 전투 이후 6월 19일 일제 조선군사령부(朝鮮軍司令部)는 봉오동 전투에 관한 공식 발표를 진행했다. 야스카와가 작성한 전투보고서의 작성 시점은 조선군사령부의 공식 발표가 있었던 6월 19일 이전으로 추정된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봉오동부근전투상보」는 여러 차례 가필이 있었으며, 시간에 쫓겨 급히 정리된 문서로 파악된다. 조선군사

령부는 봉오동 전투로 인한 파급력을 우려했다. 그에 따라 전사상자 숫자를 통제한 후, 보고서의 일부만 공개했던 것이다. 1920년 8월 9일, 조선총독부 경무국장은 일본 외무차관에게 전보를 보냈다. "상해에 있는 소위 가정부(假政府)는 온성 대안(對岸)의 불령선인단(不逞鮮人團)이 봉오동에서 아군 추격대를 만나 참패(慘敗)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승(大勝)으로 바꾸어 여러 차례 불온문서를 인쇄 발표하였다."

일본은 상해의 임시정부가 봉오동 전투에 관해 전과를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봉오동 전투에서 독립군이 '참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승'으로 승패를 바꾸었다는 것이다. 또 여러 차례 '불온문서'를 만들어 배포했다는 것이다. 뒤집어 보면, 일본측은 봉오동에서 일본군이 '대승'을 거두었고, 독립군은 '참패'했다고 인식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일본군의 목표는 "불령선인단에게 섬멸(殲滅)적 타격을 줄 필요가 있으며, 특히 전멸(全滅)시키기 위해 병력을 대안(對岸)으로 출동시킨다"였다. 일본군은 전투 목표를 전혀 달성하지 못했다. 그 과정에서 다수의 사상자를 발생시켰으며, 중국과 외교 마찰도 일으켰다. 봉오동 전투는 1919년 3.1운동 이후 독립운동 열기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이러한 봉오동 전투의 결과가 대외적으로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한 것은 일본이었다. 봉오동 전투는 명백한 독립군의 승리였다

봉오동 전투의 의의

봉오동 전투는 세계 전사(戰史)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전투다. 무장 독립운동은 국내에 기반을 두고 주로 산악 지대에서 게릴라전을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우리 독립군의 경우 국가가 멸망한 상황에서 국외에 군사거점을 마련하고 병력을 무장시켰다. 그 군사력을 바탕으로 국내 진입을 시도했고, 그 결과 봉오동에서 일본군과 대규모 전투를 벌였다. 지금까지 동아시아 곳곳을 침략하며 승리를 거두하던 일본 정규군을 독립군이 대파(大破)했던 것이다.

6월 15일, 일본의 간도(間島) 총영사대리(總領事代理)였던 사카이(堺)는 일본 외무대신에게 의미심장한 전보를

필자 소개

우리나라 전쟁사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역사학자다. 현재 육군사관학교 군사사학과장으로 재직 중이며, 사관생도들에게 한국사와 군사사를 강의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나당전쟁 연구」(2013년 세종도서 학술부문), 「전략전술의 한국사」(2015년 세종도서 학술부문), 「신라는 어떻게 살아남았는가」(2016년 세종도서 교양부문), 「전쟁 이후의 한국사」(2018), 「신라의 통일전쟁」(2021년 세종도서 학술부문) 등이 있다.

보낸다. "아(我) 월강추격대에 반항하여 교전한 불령단(不逞團)은 해(該) 전투에서 비상한 대승리를 얻고 아군을 조선측으로 격퇴한 것 같이 선전하고 있다. 또한 이를 독립전쟁의 제1회전이라고 칭한다." 봉오동 전투는 일제에 의해 우리나라가 강제 병탄된 이래, 독립군이 일본 정규군과 대규모 전투를 벌여 최초로 승리한 사건이었다. 이른바 '독립전쟁 제1회전'으로 평가된다. 봉오동 전투는 단기적으로 청산리 전투의 승리를 견인했고, 장기적으로 항일 무장투쟁의 원동력을 제공했다. 구한말 의병들은 번번이 일본군에게 패해 참살당했었다. 이제 독립군이 일본군과 대규모 전투를 벌여 승리할 수 있게 되었다. 그것도 국내가 아니라 국외에서 말이다.

현재 독립군과 일본군 사이에 전사상자 인식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여기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일본군 정규부대가 독립군의 매복작전에 걸려 전투 목표를 상실하고 대규모 인명 피해를 입고 서둘러 퇴각한 전투라는 점이다. 패배한 일본군은 충격을 받았고, 승리한 독립군은 자긍심이 생겼다. 봉오동 전투는 독립군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 전체의 사기를 드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한인의 러시아 이주사(상)¹⁾

연해주로의 이주와 민족운동의 전개



반병률
한국외대 사학과 명예교수 · 홍범도 아카데미 원장

머리말

구소련 내의 한인 수는 대체로 약 50여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우즈베키스탄(약18만 명)과 카자흐스탄(약 10만 5천 명)을 비롯하여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키멘스탄 등 중앙아시아 지역에 약 60퍼센트가 넘는 30여만명이, 나머지가 러시아연방(약15만 명)과 우크라이나(약 1만3천 명)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련붕괴 이후 30여년이 흐른 지금 한국(9만 명)을 비롯하여 유럽과 미국 등 구소련권 밖의 지역으로 다수의 고려인들이 이주하여 생활하고 있다.

현재 중앙아시아에 살고 있는 ‘고려사람’ 또는 ‘고려인’으로 불리는 한인들의 선조가 19세기 후반 이래 연해주로 이주한 농민들로서 구소련 한인사회의 주류라 할 수 있다. 한편, 일제 말기 징용으로 끌려간 남부 사할린의 한인들은 1945년 일본의 패망으로 소련에 편입된 사람들이다. 이들 ‘조선인’은 1948년 이후 중앙 아시아로부터 온 한인, 즉 ‘큰땅배기’ 사람들로부터 ‘일본어만 알고 러시아어도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심지어는 ‘친일분자’라는 의혹을 받으며 차별받기도 했다. 최근에는 이처럼 동쪽의 사할린으로부터 유럽 러시아에 걸쳐 살고 있는 한인들을 포괄하여 ‘유라시아고려인’으로 통칭하기도 한다.

이들 한인은 19세기 후반 조선 정부의 차별정책과 지방관리들의 착취에 따른 경제적 궁핍을 피하여 불모지였던 연해주 지역의 농토를 가꾸며 어렵게 정착했다. 그 후 1917년의 러시아혁명과 내전, 1937년 스탈린에 의한 중앙아시아로의 강제이주와 한인 지도자들에 대한 대탄압, 그리고 최근의 소련 붕괴라는 세계사적인 대변혁과 민족주의의 발흥으로 아직도 불안정한 생활을 하고 있다. 세계 각지의 해외 동포 모두가 한결같이 낯선 이국에서의 정착과정에서 온갖 고난을 겪어온 것이 사실이지만, 구소련의 한인들에 비견할 수 없을 것이다.

역사적 배경

고대 만주와 연해주 지역은 오늘날 우리 선조의 하나인 부여족이 거주한 지역이었다. 이들이 세운 부여는 송화강 유역에서 번영하였으며, 그 역사적 실체는 오늘날 길림성 장춘시 북방의 ‘부여’라고 하는 조그만 시의

1) 이 글은 『한국사시민강좌』 28집(일조각, 2001)년에 게재되었던 『한국인의 러시아이주사: 연해주로의 유랑과 중앙아시아로의 강제이주』를 수정한 것이다. 같은 글이 필자의 『러시아 고려인사회의 존경받는 지도자 최재형』(한울아카데미, 2020)에도 실려있다. 2회에 걸쳐 나누어 연재한다.

이름으로 남아 있다. 부여족의 일파가 압록강 중류 유역에 세운 고구려(B.C. 37~A.D. 668)는 전성기에 한반도 중부로부터, 북쪽으로 송화강, 서쪽으로 라오동반도, 그리고 동쪽으로 연해주 일대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을 통치하였다. 지배계급과 주민의 인종적 구성에 대해 남·북한, 중국, 일본 학자들 간의 논쟁이 계속되고 있지만, 고구려의 계승자임을 자처했던 발해(699~926) 역시 고구려 영토의 대부분과 흑룡강(아무르강) 하구까지 통치했다. 그러나 926년 발해가 거란에 의해 멸망한 이래, 만주와 연해주 지역은 ‘고토(故土)’로서의 의미만 지니게 되고, 한민족의 영토는 한반도 내로 축소되고 말았다.

후삼국을 통일한 고려(918~1392) 역시 고구려의 계승자임을 내세우며 ‘고토’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북진정책을 폈지만, 그 북방경계는 압록강에서 원산만에 이르는 선에 머물렀다.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한 현재의 국경선은 조선(1392~1910) 세종 때에 두만강 연안에 육진(六鎭), 그리고 압록강 유역에 사군(四郡)을 설치한 이후에 정해진 것이다.

여진족의 후예인 만주족의 청[清朝]은 자신들의 ‘발상지’인 만주를 ‘봉금지역(封禁地域)’으로 설정하고 이민을 철저히 금지했다. 청의 봉금정책에 부응하여 조선도 국경을 넘는 이들을 월경죄(越境罪)로 엄격히 다스렸다. 19세기 이후 청의 국력이 약화되면서 국경 통제가 느슨해졌고, 조선 역시 세도 정치와 삼정(三政)의 문란으로 농민의 불만이 고조되어 갔다. 1811년의 홍경래난은 평안도 지역을 몇 개월 동안 반란의 소용돌이에 빠뜨렸다. 농민의 불만과 저항은 1862년의 진주 민란을 비롯한 삼남민란 때 최고조에 이르렀다. 점차 많은 함경도와 평안도의 농민이 국경을 넘어 만주와 연해주 지역으로 이주를 감행했다.

우리가 러시아와 최초로 접촉한 때는 청의 요청으로 1654년과 1658년 각각 150명, 200명 규모의 군대를 파견했던 나선정벌(羅禪征伐) 때였다. 200년 후인 1854년, 러시아 해군제독인 푸치아친(E. V. Putiatin)이 원산만에 와서 무역과 조약체결을 요구하면서 한·러간의 접촉이 다시 시작되었다. 러시아는 1858년 청과의 아이훈조약으로 흑룡강 이북(아무르주), 1860년의 베이징조약으로 우수리 강 이동의 연해주 지역을 확보함으로써 마침내 우리와 두만강을 경계로 국경을 접하게 되었다.

제정러시아 시기의 한인사회

1) 한·러 국교 수립 이전의 초기 이민(1863~1884)

러시아로의 최초의 한인 이주는 1863년 겨울 함경북도 국경지역의 13가구가 두만강을 건너 노보고로드(Novogorod) 만의 포시에트 항구 북방 약 5킬로미터의 지신허강(Tizinkhe River) 계곡에 정착한 것이다. 조선 정부나 러

시아당국의 허가 없는 불법 이민이었다. 당시 월경죄인으로 잡히면 처형되었으므로 목숨을 걸고 감행한 이주였다. 이들은 노보고로드 경비대 책임자 레자노프(Rezanov) 중위에게 정착 허용과 만주 마적인 홍후즈[紅鬍賊]의 약탈로부터 보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러시아당국은 이들 첫 이주민들의 토지경작을 허용했을 뿐만 아니라 씨앗과 식량을 주었다. 연해주 군무지사는 1863년 11월 30일 자로 이주 한인들에 관한 최초의 보고를 한 레자노프의 이름을 따 최초의 한인마을을 ‘레자노보(Rezanovo)’라고 명명하였다.

1869년에 가장 심했던 연이은 대흉년으로 국경 육진(六鎭)지방의 농민들이 북간도와 연해주로 대규모의 이주를 하였다. ‘한 줌의 벼도 거둘 것이 없던 전례 없는’ 대흉년으로 밤 사이에 마을 전체가 텅 비게 된 곳이 허다했다. 당시 수많은 굶주린 사람들이 먹을 것을 찾아 길거리를 헤맸고 시체들이 길거리에 즐비했으며, 심지어는 사람을 잡아먹기까지 했다고 한다. 당시 약 50만 명이 기근으로 사망하였다는 기록도 있다. 그해 6월부터 12월까지의 6개월 동안에 약 6,500명의 농민이 지신허 지방으로 이주하였다. 그 가운데 4,500명이 12월 초에 이주했는데, 3분의 2가 아무것도 지니지 않은 채로였다. 결국 하루에 수백 명씩 굶어 죽었고, 그나마 러시아 당국이 제공한 식량 덕택에 불과 반 정도만 살아남았다. 후일 한인들은 이 대흉년을 ‘기사흉년(己巳凶年)’으로, 대량이주를 ‘경오도강(庚午渡江)’이라고 불렀다.

연해주 군무지사 푸루겔름(I. V. Furugel'm)은 트루베츠크이(Trubetskoi)를 경흥부사에게 파견하여 한인 이주민들을 조선으로 귀환시키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한인 이주민들은 조선으로 귀환하라는 푸루겔름의 명령을 거부하였다. 이들은 귀환은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니 차라리 러시아에서 굶어 죽겠다고 버텼다. 결국 푸루겔름은 새로운 이주민들의 러시아 내 정착을 허락했다.

한·청·러 국경 지역에 다수의 한인 이주민들이 거주함으로써 발생할 제반 문제들을 우려한 러시아당국은 이들을 국경지방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재차 이주시켰다. 푸루겔름은 최근 이주자들을 항카호(興凱湖)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이푼강, 슈판강, 레프강 등의 유역, 그리고 나중에는 연해주 동남지역의 수청강 유역까지 이주시켰다. 1871년 봄에는 동시베리아 총독 시넬리니코프(N. P. Sinel'nikov)가 포시에트 지역의 한인 103가구 431명을 아무르 주(흑룡주)의 아무르강 지류인 사마라강 어구로 이주시켰다. 이 새로운 한인촌은 러시아어로 ‘축복이 내린 마을’이라는 뜻을 가진 블라고슬로베노예(Blagoslovennoe)라 했고, 한인들은 ‘사만리’라고 불렀다. 이들은 1861년의 이민촉진법에 따라 영구적인 인도세 면제, 20년간의 토지세 면제의 혜택을 받았고, 러시아 국적을

취득하고 러시아 정교를 믿었으며, 러시아 농민과 마찬가지로 가구당 100데샤친(270에이커)의 토지를 부여받았다.

1863년 이후 1884년에 이르는 시기, 즉 한·러간에 외교적 관계가 수립되지 않았던 시기에 러시아 당국자들은 한인 이주자들을 매우 우호적으로 받아들였다. 연해주 지역은 인구밀도가 매우 낮고 또 조속한 식민화가 절실한 상태였으므로 식량과 노동력의 공급자로서의 한인 이주민들을 환영했다. 러시아인만으로 이 지역을 식민화한다는 것은 아직은 매우 비현실적이었다.

1882년 현재 연해주 지역 한인의 수는 10,137명으로 연해주 지역 전체 인구의 10.9%를 차지하여 러시아인 수 8,385명을 앞섰다. 이들 한인 이주자는 러시아 농민들보다 훨씬 뛰어난 경작 농민이었으며, 대부분 카자크와 러시아 농민들의 농토를 소작했다. 한인 이주민들은 식량, 값싼 노동력과 농업기술을 제공하여 연해주의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2) 국교 수립 이후의 한인 이민(1884~1905)

1880년대에 들어오면서 러시아당국은 '러시아인을 위한 러시아'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적극적인 러시아인 이주장려책을 채택했다. 이는 청의 적극적인 만주 식민화 정책과 군사력 증강에 대한 우려의 소산이기도 했다. 1882년 러시아 정부는 우선 시베리아 지역의 외국인 토지 소유를 금지하는 법령을 제정하였다. 러시아 정부는 남부 러시아 오데타로부터 오는 이민자들에게 해운·운송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규정한 법(1879년)을 의욕적으로 추진하였다. 러시아 정부는 남부 러시아로부터의 이주민을 유치하기 위하여 남우수리재정착법을 반포하였는데, 토지의 무상할당(1인당 15데샤친, 가구당 최대 100데샤친)은 물론, 5년간의 세금면제, 18개월간의 식량 공급, 건축자재와 농기구의 제공과 같은 특혜를 규정하였다. 러시아 정부는 또한 1884년 동시베리아 총독이 관할하던 자바이칼주, 흑룡주, 연해주와 사할린을 동시베리아로부터 분리하여 하바롭스크의 연흑룡주 총독부에서 관할케 하였다. 이러한 정책의 결과, 연해주 지역의 러시아인 수가 급격히 늘어났다. 1882년에 8,385명으로 전체 인구의 9%에 불과했던 러시아인의 수가 10년 후인 1892년에는 무려 57,000명으로 급증하여 연해주 전체 인구의 38.6%를 차지하여 인종별 구성에서도 최대 점유율을 차지하였다. 러시아인 이민은 계속 증가하여, 마침내 1908년에는 383,083명으로 연해주 전체 인구의 절대다수(72.9%)를 차지하게 되었다.

한편, 러시아 정부는 1884년 7월 7일 조선과 조러수호통상조약(朝露修好通商條約)을 체결하고 양국 국민의 국경 통과를 법적으로 통제케 하였다. 이어 러시아 정부는 초대 주한 공사 웨베르(Karl I. Weber)로 하여금 조선 정부와 국경지

대에서의 무역에 관한 협약 교섭을 추진하게 하였다. 웨베르는 1884년 이전에 이주한 한인들에게 러시아 국적을 부여하는 조항을 협약에 포함할 것을 제안하였고, 조선 정부 교섭 대표인 김윤식도 이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이주 한인들의 러시아 입적을 달가워하지 않았던 조선 정부는 이를 명문화하는데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1888년 8월 20일 두만강 연안 지역의 무역과 국경왕래에 관한 '조러육상통상장정(朝露陸上通商章程)'을 체결하였다. '조러육상통상장정'에는 명문화하지 않았으나, 양국 정부는 1884년 이전 이주 한인들에게 러시아 국적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주 한인에 대한 국적 부여와 토지할당을 원치 않았던 연흑룡주 초대 총독 코르프(A. N. Korf, 1884~1893년 재임)와 연해주 군정순무사 운테르베르게르(P. F. Unterberger, 1888~1897년 재임)가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았다. 그러나 1890년 청이 북간도 지역 한인에 대한 강력한 입적추진정책을 취하자, 이에 자극을 받은 코르프 총독은 모든 한인 이주민을 세 가지 범주로 나눈 명령을 내렸다. 첫째 범주에 속한 한인 이주민은 1884년 이전에 이주한 자들로 이들에게는 러시아 입적과 함께 15데샤친(40.5에이커)의 토지할당을 약속하였다. 둘째 범주의 한인 이주민은 1884년 이후에 이주한 자들로 2년 이내의 유예기간을 주고 사업을 정리케 하되, 그동안은 첫째 범주의 한인들과 같은 납세, 부역의 의무를 이행해야 했다. 이들은 2년 후에는 셋째 범주의 한인들, 즉 외국인으로서 일시적으로 체류한 자들과 마찬가지로 러시아와 조선 정부가 발행하는 여권을 갖고 있어야 했다.

코르프 총독의 사망 후, 연이어 부임한 두 총독 두호브스코이(S. M. Dukhovskoi, 1893~1898년 재임)와 그로데코브(N. I. Grodekof, 1898~1902년 재임)는 전임 총독과 달리 한인 이주민에게 매우 우호적인 정책을 취하였다. 이들은 한인 이주민을 연해주 식민화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적 부여와 토지할당, 그리고 적극적인 러시아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다. 그리하여 러시아당국은 1895년 9월 연해주 지역의 한인의 인구수와 호수를 조사하여, 1896년 제1 범주에 속하는 가구 1,500호에 러시아 국적을 부여하였다. 이들은 동시에 러시아 농민과 같이 가구당 15데샤친의 토지를 할당받았고, 인두세 면제, 20년간의 토지세 면제 혜택을 받았다. 두호브스코이 총독은 1884년 이후에 이주한 자들도 체류 기간을 연장해 주고 러시아 입적 여부를 심사케 하였다. 그로데코브 총독은 한 걸음 더 나아가 1898년 러시아 국적을 받지 못한 제1 범주의 한인들에게 국적을 부여하고, 5년 이상 거주한 제2 범주의 한인들에게도 입적을 약속하였다. 이 결과 특히 제2 범주의 많은 한인이 연해주 북부지역으로 이주하여 한인촌락을 건설했다. 이들 역시 5년 이내에 러시아 국적을 부여받았다.

두호브스코이와 그로데코브 두 총독의 정책에 힘입어 입적 한인은 1892년 12,940명에서 1902년 16,140명으로 증가했고, 이주한인의 수도 꾸준히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에 16,564명에서 32,410명으로 두 배 증가했고, 1898년 초에는 한인의 수가 러시아인, 원주민, 중국인에 이어 네 번째를 차지했다. 이주 한인들의 86%는 남부 우수리 지역에 집중적으로 거주하여 이 지역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여 러시아인에 이어 두 번째였다. 이들 초기에 입적한 한인들을 원호인(元戶人, 原戶人)이라 했는데, 입적하지 않은 여호인(餘戶人, 流戶人이라고도 함)과 구별되었다. 이들 외에도 품삯을 벌기 위해 조선에서 온 '외품자리'라 불린 떠돌이 임금노동자들도 있었다. 「한국과 그 이웃나라」의 저자인 비숍(Bishop, Isabella L. Bird) 여사는 국내 지방을 여행한 후 1897년 남부 우수리 지역의 한인촌락들을 방문했는데, 「기근을 피해 이주한 굶주린 무리」들이 「정직한 행정당국의 보호」하에 「생기 넘치고, 윤택한 농민들」로 변모한 이주 한인들의 생활상태를 보고 크게 감명받았다고 기록했다(Isabella L. Bird, Korea and Her Neighbors(이사벨라 버드, 「한국과 그 이웃나라들」), Charles E. Tuttle Co., Inc., Tokyo, 1986, vol. 2, p.18).

원호인들 가운데는 '쁘드라드치크'라 불린 이들이 있었는데, 러시아어에 능통한 이들은 러시아군대와 관청에 소고기와 같은 물품을 군납하거나 군사시설건설공사의 청부업을 하여 부를 축적했다. 1880년대 초에 이미 한두 명의 뿌드라드치크가 출현하였지만, 대부분은 1890년대 후반 시베리아 횡단철도나 동중철도(東中鐵道) 건설 붐, 그리고 1900년의 의화단사건, 러일전쟁 당시 증가한 러시아군대의 군수품을 청부하면서 막대한 부를 축적하였다. 경제적인 부의 축적과 법적인 지위 향상을 배경으로, 1890년대 후반 일부 원호인들에 의한 을미사변(乙未事變)을 겪은 고종이 러시아공사관으로 피신한 1896년의 이른바 아관파천(俄館播遷)으로 친러 내각이 들어서자, 조선 정부 내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이 커졌다. 이에 따라 연해주 한인 52명이 공사관 직원이나 군사교관의 통역으로 차출되어 조선으로 나갔다. 이들 가운데는 조선 정부의 요직에 임명된 자들도 있었다. 최재형의 경우도 고종이 여러 차례 불렀으나 응하지 않았고 한다. 김도일은 1896년 5월 26일에 거행된 러시아황제 니콜라이 2세 대관식에 전권공사로 파견된 민영환을 수행원으로 따라갔고, 포시에트 구역의 초대 도헌(都憲: 면장에 해당)인 최재형이 연해주의 한인 대표로 참석

하였다. 원호인들 가운데는 1904~1905년의 러일전쟁기에 러시아 측에 가담한 이들이 많았다.

3) '보호 통치'하의 한인 이민(1905~1910)

1905년의 이른바 을사조약 체결과 1910년 국권 상실을 전후하여 국내에서 의병전쟁과 애국계몽운동에 참여하였던 애국지사들을 비롯한 정치적 이주자들이 많았다. 러일전쟁에서 패배한 러시아 관헌들의 우호적 태도 역시 이들의 노령행을 촉진하였다. 1906년에서 1912년에 이르는 연해주 지역의 한인 인구는 34,399명에서 59,715명으로 74%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비입적 한인, 즉 원호인의 증가(17,334명에서 43,452명으로)에 따른 것이다. 통계에 잡히지 않은 약 30%의 비공식 이주민들을 포함하면, 이보다 더 많을 것이다. 그리하여 1910년 무렵의 한인은 8만~10만 명에 달했다. 한인 이주민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입적 한인의 수는 1902년의 16,140명에서 1912년의 16,263명으로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 이것은 연해주 군정순무사였던 운테르베르게르가 1900년에 발간한 「연해주, 1856~1898,에서 주장한 '러시아인을 위한 러시아' 입장이 러시아 당국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P. F. Unterberger, Primorskaia oblast' 1856~1898(운테르베르게르, 「연해주, 1856~1898」), St. Petersburg, V. F. Kirshbauma, 1900, pp.114~115]. 더욱이 운테르베르게르는 연흑룡주 총독으로 재임한 기간(1905~1910)에 한인 이주민들을 겨냥한 부정적인 캠페인을 전개했다. 1908년에 내무부에 제출한 보고서에서도 운테르베르게르는 러시아가 일본이나 중국과 전쟁상태로 들어갈 경우, 한인 이주자들이 적국(敵國)을 위한



“광범한 첩보조직의 매우 유리한 근거”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V. V. Glave, Kitaitsy, Koreitsy I lapontsy v Priamur’e(그라베, 「연혁롱주의 중국인, 한인, 일본인」), V. F. Kirshbauma, St. Petersburg, 1912, pp.134~135].

운테르베르게르 총독의 입장은 당시 연해주로의 러시아인 이민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던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1900년 자바이칼철도의 개통, 1902년 동중철도의 개통은 러시아인의 이민을 촉진하여 1900~1908년 동안 러시아인 이민은 이전 시기와 비교하여 4배 반이나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러시아인 농민과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었다. 이러한 여론을 배경으로 1907년 11월에 새로이 성립한 보수적인 두마(Duma: 의회)가 외국인 이주민들을 제한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였다. 두마는 1910년 7월 4일 연혁롱주 지역 한인과 중국인의 노동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 법은 결국 값싼 한인 노동자의 고용으로 혜택을 보고 있던 러시아인 금광업자들의 반발을 사는 등 난관에 봉착하였고, 마침내 1911년 3월 23일 폐지되었다.

이러한 정책변화는 1911년 운테르베르게르를 대신하여 곤닷치(N. L. Gondatti, 1911~1917년 재임)가 새로운 연혁롱주 총독으로 임명된 사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곤닷치는 남부 우수리 재정착 사무국장(1899~1902)과 아무르조사단 단장(1909~1910)을 지낸 인물로서 대표적인 한인 옹호론자였다. 한인 이주민에 대한 아무르조사단의 우호적이며 현실적인 평가는 조사단원이었던 그라베(V. V. Grave)가 작성하여 1912년에 내무부에 제출한 조사단의 보고서 「연혁롱주의 중국인, 한인, 일본인」에 잘 반영되어 있다. 곤닷치는 두호브스코이와 그로데코브 두 총독과 마찬가지로 한인 이주민이 러시아의 정치·경제적 이익에 기여하는 신뢰할 수 있는 존재이며, 특히 일본과의 충돌 시에는 유용한 잠재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특히 곤닷치는 1912년 2월 23일 신한촌에서 한인들이 마련한 환영식 석상에서 “한국을 사랑하지 않는 한인들은 러시아에서도 환영받지 못할 것이다”라고 공언하여 한인들을 감동시켰다.

민족운동의 전개(1905~1922)

이른바 을사조약 이후 많은 애국지사들이 후일을 기약하며 연해주로 와서 민족운동을 개시하였다. 러일전쟁 당시 충의병(忠義兵)을 이끌고 일본군과 전투를 벌인 바 있는 전 간도관리사 이범윤이 연해주로 와서 의병운동을 조직하였다. 한인사회의 지도자 최재형과 전 러시아공사 이범진의 아들이자 헤이그 밀사였던 이위중이 이범윤, 안중근, 엄인섭, 김기룡 등과 함께 동의회(同義會)라는 의병 본부조직을 창설하고, 같은 해 여름에는 국경 지대에 대한 과감한 진공작전을 감행하

였다. 그러나 1908년 여름에 정점에 달했던 의병운동은 의병진 지도부의 분열, 원호인 부호들의 의병 반대운동, 러시아 당국의 금지 등 여러 요인 때문에 쇠퇴의 길을 밟았다. 의병운동과 함께 계몽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중심지는 한인들이 해삼위(海蔘威) 또는 해삼(海蔘)이라 불렀던 블라디보스토크였다. 블라디보스토크에는 1874년에 한인촌 개척리(開拓里)가 형성되었는데, 한인들은 이 개척리를 1911년 중반에 형성된 신한촌과 구별하여 구개척리라 했다. 계몽운동은 1908년 가을 이후 쇠퇴한 의병운동을 대신하여 발전하였다. 연해주 지역의 계몽운동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부를 둔 공립협회(公立協會)와 이를 계승한 국민회(國民會)에서 파견한 이강, 정재관, 김성무 등이 주도하였다. 「해조신문(海朝新聞)」, 「대동공보(大東共報)」, 「대양보(大洋報)」등 한인 신문을 무대로 활약한 이들의 노력으로 국민회는 러시아와 만주지역에 그 조직을 크게 확대하였다. 그러나 국민회는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한 러시아당국의 의구심을 받아 활동 근거지를 자바이칼주의 치타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다. 의병운동 역시 1910년 여름 국망(國亡)의 절박한 상황에서 13도의군(十三道義軍)과 성명회 결성으로 일시적으로 고조되었지만, 1910년 가을, 이범윤 등 지도자들이 이르쿠츠크로 유배되고 말았다. 연해주 지역, 특히 신한촌은 1910년대 해외 독립운동의 가장 유력한 근거지였고, 그 중심기관은 권업회였다. 권업회는 1911년 12월 17일 러시아당국의 인가를 받아 정식으로 출범하였는데 명실상부한 한인의 대표기관이었다. 권업회는 「권업신문(勸業新聞)」의 발간, 한인학교의 설립과 강좌 개설, 러시아 국적 취득 알선, 이만강 이북 라블류 지역의 농업 단지 건설계획, 한인 이주 50주년 기념행사 등을 추진하였다. 특히 1912년 5월 4일에 창간된 「권업신문」은 러시아지역은 물론 국내, 만주, 중국 관내, 일본 그리고 미주와 하와이에까지 배포되어 당시 미주의 「신한민보」, 「신한국보」 후에 「국민보」로 개칭]와 함께 대표적인 3대 항일민족언론지였다. 권업회를 통한 합법적인 활동 외에도 이동휘, 이종호, 이상설, 이동녕 등 애국지사들은 1913년 말 러일전쟁 10주년에 대비하여 항일광복전쟁을 목표로 한 대한광복군정부를 조직하기도 했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러시아 정부는 동맹국 일본의 요청을 받아들여 권업회 해산과 「권업신문」의 폐간을 명령하고 애국지사들에 대한 체포 또는 추방령을 내렸다. 제1차 세계대전 동안 4,000명의 입적 한인들이 전쟁에 동원되었고, 장교로 근무한 자만도 150명에 달했다.

러시아의 한인은 2월혁명을 열렬히 환영했다. 연해주 남부 농촌지역에서는 군촌회(郡村會)와 사회공안위원회에 원호인이 대거 참여하였고, 신한촌을 비롯한 연해주의 거의 모든 지역에 한민회[또는 한인회]가 성립되었다. 1917년 6월 4일,

니콜스크-우수리스크에서 각지 대표 96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로한족대표자회(全露韓族代表者會)가 개최되었다. 한인의 유일한 대단체를 조직하고 신문 발간 등을 토의해 보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대회는 원호인들의 자치와 권리 신장만을 강조하고, 구속된 이동휘 등 항일운동가들의 석방문제 등 항일 이슈는 소홀히 하였다. 대회를 주도한 원호인들은 자기들만으로 고려족중앙총회를 조직함으로써 여호인 농민들과 망명 애국지사들의 반발을 샀다. 대회의 결의에 따라 1917년 7월 8일 신한촌에서는 「한인신보(韓人新報)」가, 그리고 니콜스크-우수리스크에서는 「청구신보(靑邱新報)」가 창간되었다.

10월혁명이 발발한 후, 친불세비키적인 노선을 취한 망명 애국지사들과 여호인 농민들은 별도로 하바롭스크에 본부를 둔 한족중앙총회 조직을 추진하였다. 이 조직의 주도자들은 소작 농민들의 입장을 대변하였고, 원호인에 비하여 한층 항일적이었다. 결국 고려족중앙총회와 한족중앙총회는 5개월 후에 개최할 전로한족대표자회(한장회의)에서 원호인과 여호인을 통합한 새로운 중앙기관을 성립하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친불세비키적인 이동휘, 김립, 박애, 이한영, 장기영 등은 김알렉산드라의 지도를 받아 1918년 5월 11일 한인사회당을 창립하였다.

1918년 6월 13일부터 24일까지 니콜스크-우수리스크에서 129명의 각 단체 대표와 학교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제2차 특별전로한족대표자회의가 개최되었다. 대회는 시국문제, 토지문제에서 크게 대립하였고, 반불세비키 입장을 취했던 사회혁명당[에스.엘] 계열의 원호인들이 다시 주도권을 장악한 가운데 전로한족중앙총회를 조직했다. 1918년 5월 이후 시베리아 횡단철도 연변 여러 도시에서 체코군이 봉기하였다. 6월 29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체코군이 봉기하자, 일·미·영·프 등은 8월, ‘체코군 구원’의 명분을 내걸고 무력개입을 단행하였다. 이에 따라 시베리아와 러시아 원동지역의 불세비키 정권들이 붕괴되고 사회혁명당 계열의 중간파 정권들이 들어섰다. 전로한족중앙총회는 사회혁명당 계열의 중간파 정권을 지지하였고, 일부 간부들은 1918년 가을 중간파를 대신하여 성립한 백위파 정권을 지지하기까지 했다. 전로한족중앙총회는 가까스로 합법적 지위를 유지하였지만, 한인사회당 그룹은 농촌 지역이나 만주지역으로 도피하였다.

연해주 지역에서의 3·1운동은 전로한족중앙총회가 주도하였다. 전로한족중앙총회는 윤해와 고창일을 파리강화회의에 대표로 파견하였으며, 2월 말에서 3월 초 러시아지역, 서북간도, 그리고 국내의 독립운동단체 대표들이 참가한 가운데 대한국민의회(大韓國民議會)로 확대·개편되었다. 국민의회는 전체 한인의 최고중앙기관임을 자임하였으며, 연해주 각지에서 독립선언 집회를 주도했다. 3월 말, 4월 초로 접어

들면서 국내 진입을 위한 무력 양성 운동이 본격화되었는데, 이동휘, 김립 등은 러시아와 중국의 국경지대에 독립군 본부를 설치하였다. 국민의회의 군무부장 대리 김하석 역시 백위파 장군인 호르바뜨와 협약을 맺고 동중철도수비대에 600여명의 한인 청년들을 모집·파견하였으나, 군사훈련과 무기 제공이라는 당초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중노동만 시키는 데 반발하여 대거 이탈하였다. 이후 상해임시정부와 국민의회가 통합에 합의하고 1919년 8월 30일 국민의회가 해산을 선언하자, 이동휘는 ‘통합’임시정부의 국무총리에 취임하였다. 그러나 교통총장에 선임되어 있던 국민의회 의장 문창범은 상해임정의 ‘약속 위반’을 비판하며 취임하지 않았으며, 국민의회는 1920년 2월 15일 재건을 선언하였다.

1920년 초 이래 불세비키 혁명세력이 백위파 정권들을 붕괴시키며 득세하게 되자, 한인 독립운동 세력들은 점차 공산주의를 표방하게 되었는데, 각지의 러시아 공산당 산하에 고려부를 조직하거나, 독자적인 한인 공산당을 조직하였다. 이들 한인 공산주의 세력들은 상해파와 이르쿠츠크파로 나뉘어 각축하였다. 1921년 봄, 아무르주의 자유시 [스바보드노예]에는 일본군이 자행한 경신참변(간도참변, 간도사변)을 피해 만주로부터 이동해 온 독립군 부대와 연해주, 흑룡주에서 활약하던 한인 빨치산부대 약 3,000명이 집결해 있었다. 이들 한인 무장부대를 둘러싸고 양 파벌 간에 치열한 군권 쟁탈전이 전개되었다. 결국 1921년 6월 28일, 이르쿠츠크파의 고려군정의회가 상해파의 사할린의용대를 강제로 무장해산하면서 수백 명의 사상자를 낸 동족상잔의 자유시참변이 발생하였다.

시베리아내전 시기에 한인 동포들이 겪은 또 하나의 큰 사건은 4월참변이다. 1920년 4월 4~5일 밤에 시베리아에 출병한 일본군이 연해주 일대의 러시아혁명 세력과 한인사회를 공격한 만행적 사건을 말한다. 일본군은 러시아혁명 정부의 공공기관을 공격함과 동시에, 연해주 각지의 한인들에 대한 대량검거, 방화, 파괴, 학살 등의 만행을 자행하였다. 특히 니콜스크-우수리스크에서는 일본군이 한인 76명을 검거하고, 4월 7일 최재형, 김이직, 엄주필, 황경섭 등 한인 지도자들을 학살하였다. (가을호에 계속)

편집자 주 홍범도 장군 유해봉환 기념 소설 '나는 홍범도' 독후감 공모전 수상 작품을 3회에 걸쳐 게재하였습니다. 이번 호는 고등부 최우수상 작품을 실습니다. 독후감 공모에 응모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부끄러운 고백

최우수상 / 허경서(고등부)



가끔은 문득 그런 생각이 들곤 했다. 나라를 구하는 건 얼마나 대단한 일일까?

내가 그 시간들을 살아간다면 우리나라 땅을 지키기 위해 독립운동가들만큼 헌신할 수 있는 용기가 있을까? 스스로 되물곤 했다. 사실 이럴 때마다 망설이게 된다.

피 흘리며 쓰러지는 전우를 보고서도 다시 싸우기 위해 등을 돌려야 한다는 것이,

평생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던 사람을 두고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곳에 나가 모두를 위해 싸워야 한다는 것이.

그 자체만으로도 내게는 고문으로 다가올 것 같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연인을 잃는다는 것, 언제든지 함께일 것 같았던 전우를 잃는다는 것은

인생의 전부를 잃는 듯한 느낌이 아닐까 싶다.

수많은 접전 속에 그들은 얼마나 많은 이들을 가슴에 묻고 다시 총을 들었을까?

이 책의 주인공 홍범도는 심 노인이 있기에 본인이 존재한다고 생각했다. 주막에서 만난 그 순간부터 심 노인이 숨을 거두는 마지막까지. 그리고 심 노인이 호시기 잡는 방법을 알려줄 때의 “빛과 어둠이 어느 쪽인지를 먼저 생각해라.”라는 말을 떠올리는 장면 등, 일찍이 어머니를 여읜 홍범도 옹기에 심 노인을 통해 삶을 배웠던 것이다. 홍범도는 울며 고기를 굽다가 우연히 김수협을 만난다. 둘의 마음이 같다는 걸 느껴 나라를 구하기 위해 의병을 맺게 되고, 점점 의병 운동의 규모도, 참가하는 인원의 수도 커지기 시작한다. 이 책은 조금 작았던 투쟁 운동부터 김수협의 “조선을 지키는 우리, 끝내, 끝끝내 이긴다.”라는 말처럼 봉오동전투, 청산리전투에서 승리를 거둬내는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이다.

경찰관을 꿈꾸고 있던 나는 친구들이 모의고사 문제집을 풀 때, 한국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공부를 했다. 처음으로 제대로 된 공부를 시작하면서 막막하고 모든 것이 어렵지만 했다. 독립운동가 이름은 너무나도 많았고 대한독립군, 대한광복군, 독립의군부 등 알아야 할 부대가 10개도 넘었기 때문이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공부하는 동안 힘들어했던 순간이 떠오르면서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부끄러웠다. 내가 지금 이 땅에 두 발로 서있을 수 있는 이유가 이 속에 있었는데……. 무수히 많았던 희생과 나라를 지키기 위한 간절함. 나라를 위한 싸움에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은 홍범도, 그때의 그들이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다.

‘획획 변해가는 많은 것들에 사람들은 쉽게 적응한다. 일본이나 청국이나 러시아가 들어와 조선을 지배하는 것에도 쉽게 적응할 사람이 많다. 나는 어떤가.’ 홍범도가 자신에게 묻는 문장이 내게 와닿았다. 아마 그들 스스로도 망설임이 있었을까? 이 질문은 나에게도 돌아오는 질문이었다. 나는 과연 어떤가? 당장 눈앞에 일본의 총구가 들이닥쳐 내 이마에 꽃힌다면, 나는 그 순간까지도 대한 독립만세를 외칠 수 있을까? 이 구절을 읽는 순간부터 나는 김수협의 가슴처럼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나와 함께 하는 전우가 있고, 이 땅에 살아가는 나의 가족이 있고, 살아갈 후손들이 있으니, 또 대한조선이 있기에……. 때로는 소심한 마음이 방대한 생각을 이끌 때가 있다. 웬지 그런 사람들과 함께라면 무엇이든지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구절이었다. 그래서 용기 없었던 자도 자신감을 가지고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을 주는 것 같았던 말. 스스로에게 묻는 홍범도의 질문이 나에게도 뜻밖의 용기를 가져다주었다. 그동안 어떠한 일이 주어졌을 때마다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에 싸여 항상 무언가 망설이곤 했던 나에게 큰 확신으로 다가설 수 있는 마음가짐을 선물로 받았다. 이제는 두려움보다 담대함이 내 마음 속에 크게 자리 잡게 될 것 같다. 무언가를 하려 할 때 망설이지 않고 시도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그가 바로 홍범도 장군이었다. 두려움에 망설이기보다 담대함이 늘 우선인 마음, 그 마음의 끝자락이라도 닮고 싶다.

나는 늘 경찰관이 될 자격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가를 고민했었다. 그동안 사명감과 봉사 정신, 경찰로서 갖춰야 할 자질들만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한 홍범도 장군의 모습을 접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동안 경찰관이 되기 위한 내 태도는 어땠을까? 경찰관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것만 생각하고 준비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홍범도 장군의

조국을 위한 삶의 장면들과 온몸을 바쳐 지켜 낸 대한민국의 앞날을 떠올리며 스스로에게 어떤 경찰이 될 것인가라는 물음을 끊임없이 던졌다.

독립운동가. 사실은 그들도 두려웠을 것이다. 자신들 앞에 놓인 수많은 총구가, 적과의 셀 수 없는 접전이, 가족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걱정들이, 잠을 설치며 수도 없이 했을 고민들이 있었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태어나 이 조국을 위해 싸우는 그들도 어쩌면 무섭고 외로웠을 것이다. 가족 곁을 떠나 전장에 나가는, 쉽지 않은 이 일은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조국에 건 것이었을 것이다. 소금밥으로 세 끼라도 챙겨 먹는 하루는 감사한 날이었고, 노루 두 마리를 잡아 고기 맛이 나는 국을 끓이는 날은 과분한 날이었다. 굶고 쫓기고 많은 걸 잃는 곳에서도 독립군들은 겁내지 않았다. 오히려 더 힘을 냈다. 웬지 앞으로 무언가에 시달려 힘을 못 낼 때가 올 때마다 이 글이 생각날 것 같다. 더 힘을 낼 수 있는 계기, 한 걸음이라도 더 내딛을 수 있는 이유가 되어줄 것이기에.

홍범도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이 날았다. 우리 독립투사들의 헌신은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될 것임을 모두가 잊지 말아야 한다. 한평생 사랑했던 연인과 피 같은 가족들을 잃는 상황에서도 총을 놓을 수 없었던 이유는 그 무엇도 아닌 오직 우리의 조국을 지켜내고자 하는 일념이었다. 그 이유만이, 자신이 피를 흘리게 되더라도 멈출 수 없는 것이었다. 부끄럽게도 이 책을 읽고서야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오늘을 더욱 감사하게 여기게 됐다. 오늘의 꿈을 꾸게 해주어서, 그 꿈을 향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힘을 불어 넣어주셔서 감사하다. 그 감사함, 꼭 잊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관이 되어 작은 힘이나마 보답하고 싶다.

2022년 하반기 주요행사

① 백령도 안보 투어

일시 | 7월 23~24 (1박 2일)
장소 | 해병부대 안보견학 및 백령도 일원
내용 | 남북 분단 대치상황에서 항일독립정신의 현재적 의미 찾기

③ 순국 79주년 추모식 및 청산리전투 전승 102주년 기념식

일시 | 10월 25일(화)
장소 | 대전현충원

② 제2회 홍범도 장군배 사격대회

일시 | 10월 20(목)~23(일) 장소 | 춘천사격장
주최 |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주관 | 대한사격연맹 후원 | 국가보훈처, 춘천시
내용 | 공기 소총, 공기권총 22년도 우수선수 초청 사격 대회(남·여, 시니어·주니어)

④ 순국 79주년 기념 학술회의

일시 | 10월 28일(금)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
내용 | 홍범도와 그의 동지들(2)

고려인 동포 서울 역사·문화 투어 체험 수기

목

편집자 주

기념사업회에서는 지난 6월 19일(일) 디아스포라 분과위원회(위원장 홍순계 이사)주관으로 '고려인 동포 서울 역사·문화 투어'를 진행 하였습니다. 1860년부터 농업이민, 항일독립운동등으로 (구) 소련연방 지역에 거주하는 고려인 동포는 약 50만 명이며 국내 거주 동포는 약 10만여 명으로 주로 생산직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 서울투어는 아직은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중·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공적인 고국 정착과 우리 문화, 역사에 대한 이해 증대와 독립전쟁에 대한 정신적 공감과 공유를 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투어에 참여한 3명의 학생들의 수기를 실습니다.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의 정감을 그대로 살리기 위해 가능한 교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고려동포
서울 역사·문화투어
체험 수기 01



고 크리스티나
문화정보고

66 너무너무 재미있고 즐거운날

99

안녕하세요. 저는 2004년 러시아에서 태어나서 2017년에 가족과 함께 한국으로 온 고크리스티나라고 합니다. 지금은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2012년 6월 19일에 즐겁게 서울로 제험학습을 간 것에 대해 소감을 써보겠습니다.

처음에는 63빌딩 아쿠아리움을 방문했습니다. 다양하고 한국에서 볼 수 없는 커다란 물고기들을 봐서 정말 좋았습니다. 수달, 우파루파, 전기뱀장어, 펭귄을 봤습니다. 특히 수달이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신나게 수영하고 귀엽게 생기기 때문입니다. 아쿠아리움을 방문한 후에는 점심을 먹으러 갔습니다. 점심에는 돈까스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점심 먹고 나서 남산 타워에 갔습니다. 버스를 타는 길에 선생님이 저희가 주변에 있는 것에 대해 역사적인 사실을 알려드렸습니다.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있는 주한 미군 육군의 주둔지이고 주로 용산 미군 기지로도 부르는 것을 알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시간에 배우는 것도 기억에 떠올라 바로 1987년에 남영역열 대학생 박종철이 고문치사 사건입니다. 그리고 가장 오래된 신세계 백화점을 봤습니다. 가다가 유명한 돈까스 집들을 봤습니다. 도착하고 게이블카에 들어가서 날씨가 흐리고 안개가 있었는데도 약 10 분정도 아름다운 풍경을 봤습니다. 게이블카에서 내려 나무 계단으로 올라갔습니다. 사랑의 자물쇠를 실제로 처음 봐서 엄청 많아서 너무 신기했습니다.

드디어 남산타워에 들어가서 엘리베이터로 F3까지 도착했습니다. 풍경이 정말 멋있었습니다. 게다가 더방이라는 가게에서 다양한 기념품을 살 수 있었고 위니비니라는 가게에는 맛이 있는거 가득했습니다. (화장실도 진짜 예술이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1969년에 착공하여 1975년 7월 30일 완공되었다는 사실과 높이는 262미터, 수도권역의 지상파 방송사들이 이 타워를 이용하여 전파를 송출한다는 것을 알게 됐었습니다. 그다음에는 이회영 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우당 이회영 선생의 도장과 당시 독립군이 사용한 모신나강 소총이 기억에 제일 잘 남기는 것입니다. 조금 쉬면서 아이스크림을 남남 먹은 후에 경복궁에 출발했습니다.

버스에서 홍범도장군 기념사업회 우원식 이사장님이 인사를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복을 빌려가서 경복궁을 돌아다니고 예쁜 사진을 찍었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경복궁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한복을 입고 돌아다녔기 때문에 옛날에 돌아오거나 드라마를 찍는 것 같은 느낌이었었습니다. 선물로 부채랑 우당 이회영 노트랑 '이회영 내 것을 버려 모두를 구하다'라는 책을 받았습니다. 너무 너무 재미있고 즐거운 날이었습니다.



고려동포
서울 역사·문화투어
체험 수기 02



임 스베들라나
안산 디자인 문화고

66 새로운 친구들 만나서, 새로운 곳에 가서, 재미 있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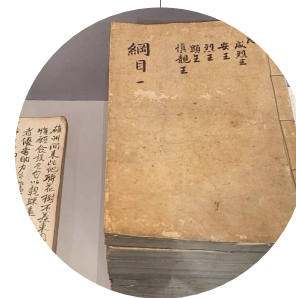
99

저는 러시아에서 온 고려인이고 제 이름은 임 스웨다입니다. 나이는 만으로 17살입니다. 제가 대한민국의 벌써 6년이나 되었고 여기서 살다보니까 고향 보다 한국은 훨씬 좋아요^^ 그리고 저는 '고려인청소년봉사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봉사단에 참여하면서 '홍범도 기념사업회' 그리고 '대한 고려인 협회'의 알게되었습니다 이 조직에서는 우리 고려인들 위해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1일 투어로 계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신청을 하고 이 투어를 참여했습니다 일단은 제가 설명하기 전에는 우리 같이 가주신 선생님들과 이것 계획해주는 선생님들한테 큰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의 간 투어를 대해 몇 가지 의견을 남기고 싶습니다. 우리가 63빌딩(아쿠아플라넷63) 남산타워, 박물관, 경복궁 방문을했습니다. 저는 63빌딩 같은 너무 높은 건물은 진짜 처음 봤습니다. 외부에서 보면 건물이 그저 놀라울 따름이지만 내부에 들어가면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있고 모든 것이 매우 아름답고 깔끔합니다. 우리가 점심을 먹고 아쿠아플라넷63 방문을 하여 너무나 제가 모르는 물고기랑 처음 보는 생물 엄청 많았습니다. 특히 생물의 크기가 진짜로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사진을 찍을려면 너무 좋은 곳입니다. 사실은 제일 기억에 남는 곳이 바로 박물관입니다. 왜냐하면 많이 걷다 보니 다들 땀이 많이 나고 피곤했는데 드디어 시원한 곳에 앉아서 선생님이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조금 쉬었습니다, 우리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어를 잘못하기 때문에 러시아어로 번역해주는 선생님이 따로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겐 제대로 번역을 안해주셔서 조금 곤란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역사나 그런 것에 대해 듣는거 별로 관심이 없는데요. 많은 것에 관심이 조금 있었는데요, 번역하시는 선생님이 가장 중요한 단어만 잘라내고 건너뛰어 설명되는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내부에서 우리는 주변을 둘러 보고 진짜 재미 있었고 고대 기록과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무기와 메달, 싸운 제복이 있었습니다. 역사를 좋아하고 적어도 역사에 대해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 엄청난 분위기 있는 곳을 한번 놀러 오면 너무 좋을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경복궁을 방문을 했습니다. 전통 옷을(한복) 입고 예쁜 사진을 많이 찍어 봤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사람들이 어떻게 어디서 살아있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친구들 만나서, 새로운 곳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재미 있게 활동을 하면서 아주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최근에 한국에 얼마나 안된 한국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되는것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무언가를 기억하고 무언가를 배웠다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처럼 같은 투어를 있으면 좋겠습니다 ^^



고려동포
서울 역사·문화투어
체험 수기 03



이 다라야
한국외국어 대학교



고려인의 정체성 찾기...

99

6월 19일날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에 주최한 고려인 동포 서울 역사 및 문화 투어에 참석했습니다. 청소년들은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투어를 시작하기 전에 홍범도 장군은 누구인지와 홍범도장군 기념사업회가 주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본 프로그램에서 63빌딩 아쿠아리움, 남산타워, 우당 이회영선생 박물관과 경복궁을 방문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고려인 동포 15세~35세까지 대상이었는데 대부분 고려인 청소년들이었습니다. 서울에서 5년동안 살면서 남산타워와 경복궁에는 여러번 가봤지만 63빌딩의 아쿠아리움에 처음으로 방문하고 전에 들어본 적 없는 우당 이회영 선생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참가자의 부모님들은 태어난 나라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 한국에 오게 되는데 자식들은 어쩔 수 없이 부모님 따라 오고 한국 문화나 한국 생활방식에 익숙하지 않은 동생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또한 참가자중에서 우크라이나 난민들도 있었습니다. 한국에 올 생각이 없었던 아이들이 우크라이나에 살기에 위험이 있어 먼 모국을 찾아 새 출발을 하려고 적응 중인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 때문에도 많이 슬펐습니다.

그러나 모든 부정적인 면을 떠나서 고려인 청소년들이 같이 놀면서 한국을 알아 가는 것이 뿌듯했습니다. 특히, 이회영 선생 박물관에서 우리 역사에 대한 아이들의 경청하는 모습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물론 노는 것도 재미있지만, 이회영 선생 박물관에 왔을때 이회영 독립운동가의 애국심에 대해서 청소년들의 많은 긍정적인 반응이 보였습니다. 설명을 듣고 나서 한국어가 서투러도 저한테 와서 고려인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물어보고 이회영 선생이 애국심이 강하다는 것에 놀라고 독립운동가의 후손으로써 더욱 더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30명만 참석을 했는데 다음에는 더 많은 청소년들을 참여해서 서로간의 네트워킹을 강화하면서 고려인의 정체성을 다같이 찾기 위해서 다양한 행사가 열렸으면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우리 동포사회에 많은 기여를 하고 싶고 앞으로는 고려인은 일반 노동자라기 보다는 고려인들을 존경합니다라는 말을 들으면 바랄게 없을 것 같습니다.

회원투고

대전 국립묘지 홍범도 장군 묘지에 홍상을 건립하자!



황원섭 기념사업회 부이사장

작년 8.15 광복절을 계기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성원으로 모든 국민들이 소망하던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국립대전현충원으로 봉환하여 자랑스럽다. 대전 묘지에는 그래도 국가보훈처의 배려로 비교적 위업을 갖추었지만, 장군의 위업을 고려할 때 다소 부족하고 서운한 구석이 있다.

홍범도 장군의 홍상은 최초로 1983년 카자흐스탄 묘지에 세워졌다. 카자흐스탄에서 발행되는 동포신문 "레닌기치" 김국천 부주필 중심으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이 모금하여 동포 조각가 최 니콜라이와 미술가 허 블라디미르의 도움으로 크즐오르다 중앙공원 묘지에 홍범도 장군의 반신 청동 홍상과 기념비를 설립하였다. 국내에서는 용산 전쟁기념관이 1994년 개관할 때, 무장독립투쟁 자료를 전시하면서 홍범도 장군의 홍상을 설치했지만, 6·25 전쟁을 중심으로 전시하여 대중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다행히 2018년부터 국방부에서 독립전쟁의 역사를 우리 국군의 역사로 편입하면서 육군사관학교에서 독립전쟁의 영웅 다섯 분의 홍상을 건립하였다. 국군에서는 당초 우리 국군의 역사를 해방 이후 군사영어학교와 남조선경비대에서 시작한다고 설명했었으나,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를 비롯한 독립운동단체와 역사학계에서 반론을 제기하여 긴장 상태에 있었다. 우리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 정부는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규정하여 당연히 임시정부에서 의결 공표된 의령과 독립군, 광복군이 우리 국군의 연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육군사관학교 교정에는 독립군의 영웅 홍범도

장군과 김좌진 장군, 광복군의 지청천 장군과 이범석 장군,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하여 독립군을 양성한 이회영 선생의 홍상이 설립되어 우리 국군의 역사를 밝히고 있다. 육사의 홍상 건립은 해방 이후 73년 만에 친일 식민사관을 극복하고 우리 국군의 역사가 제대로 복원되어 대한제국 군대 해산 이후 의병, 독립군, 광복군으로 계승된 국군의 명맥이 역사적으로 복원되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홍범도 장군 회보 2018. 3. 12)

홍상은 위와 같이 단순한 조각품이 아니라, 심오한 역사적 의미가 있고, 국민이 추모하고, 존경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상징성이 있다. 그러나 국립 대전현충원 홍범도 장군 묘역에는 홍상이 없다. 이국만리 카자흐스탄에도 우리 동포들이 장군의 위업을 기리기 위하여 건립 했던 홍상이 해방된 조국으로 봉환하면서 사라진 것이다. 우리 기념사업회에서 우원식 이사장이 주도하여 국방부 및 지방자치 단체의 협조를 얻어 장군의 홍상을 건립하려고 준비 중이다. 창원시, 춘천시, 대전시, 성남시, 안산시, 광주시가 우선 건립 대상이다. 국가보훈처에서는 장군의 홍상을 묘지 옆에 세우고, 장군이 추모하던 독립전쟁에 참여한 무명용사들의 기념탑을 세워서 더 이상 후손들이 부끄럽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특별히 장군의 유해를 고국으로 봉환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중앙아시아에 거주하는 고려인 동포들이나 국내에 거주하는 고려인 출신 동포들이 당당하게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카자흐스탄 수준의 기념물을 세워서, 장군의 위업을 받들어야 할 것이다.

기념사업회 소식 01 홍범도 아카데미 창립

지난 6월 21일 <홍범도 아카데미> 창립식을 가졌습니다. 홍범도 아카데미는 홍범도 장군을 매개로 하여 한국 근현대사에 대한 일반 대중의 역사 인식 확대와 역사 의식의 제고를 목표로 학술회의와 강연회 개최, 출판, 역사 탐방 등을 기획·진행합니다. 이날 창립식에서는 우원식 이사장이 반병률 교수(외대 사학과)에게 홍범도 아카데미 원장 임명장을 그리고 전문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습니다.



원장 반병률(한국외대)

전문위원 이완중(한국외대), 성원용(인천대), 임경석(성대), 장세윤(성대), 김도형(독립기념관), 윤상원(전북대), 이상훈(육사), 김연옥(육사), 이숙화(한국외대), 임성욱(한국외대)

기념사업회 소식 02 순국 79주년 학술회의

홍범도장군 순국 79주년 및 청산리전투 전승 102주년 기념 학술회의의 일정이 확정 되었습니다.

주제 홍범도와 그의 동지들(2)

일시 2022년 10월 28일(금) 오후 2시 ~ 6시

발표 '최진동과 북간도 지역 항일무장투쟁의 제문제' (김경준 한국외대)

'안무와 대한국민회의 항일무장투쟁' (이숙화 한국외대)

'박경철과 북간도, 러시아지역 한인 혁명운동' (한블라디슬라바 'Koryo Saram' 운영자)



기념사업회 소식 03 역사분과위원회 사격체험모임



10월에 개최 예정인 '제2회 홍범도장군배 사격대회'는 선수 사격대회와 더불어 시민참여 사격대회도 진행 예정입니다. 시민 사격대회를 주관할 역사분과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26일 7명의 이사들과(김종욱 분과위원장, 노정래, 정보현, 안태호, 박석봉, 한동건, 채예진) 4명의 회원 등 1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강남 슈팅스타 사격장에서 사격체험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날 회원들은 10M 공기권총과 공기소총 사격을 직접 체험하고, 저녁식사를 함께하며 가을 시민참여 사격대회를 준비하는 모임을 가졌습니다. 역사 분과위에서는 향후 사격모임을 정례화 하고, 사격 체험을 통해 회원 교류는 물론 포수 출신 명사수 홍범도 장군의 선양사업에 매진할 예정입니다.

기림사업회 소식 04

고려인 동포 서울 역사·문화 투어



디아스포라 분과위원회(위원장 홍순계) 주관으로 6월 19일(일) 고려인 동포 '서울 역사·문화 투어'를 진행 하였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고려인 동포 학생(중·고등학생, 대학생) 26명이 참가해서 63빌딩, 남산타워, 우당 기념관, 경복궁을 돌아보며 서울의 역사와 문화, 독립전쟁의 역사적 의미에 대해 체험하고 공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는 홍순계 분과위원장을 비롯해 대한고려인협회 부회장인 채예진 이사, 애지모 공동대표인 홍이표,이행란 이사가 투어를 진행하였으며 가이드로 유영호 작가, 사진은 최병규 작가, 통역은 이 다리야 학생(한국 외국어대)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우원식 이사장이 바쁜 일정을 미루고 경복궁으로 향하는 버스로 방문하여 인사말과 함께 참가 학생들과 일일이 기념촬영을 해주셨고, 황원섭 부이사장은 우당기념관 소개와 관람 안내를 직접 진행하였습니다.

기림사업회 소식 05

홍성종 이사 남양홍씨 종친회장 연임

홍성종 이사가 지난 6월 17일 열린 남양홍씨 남양군파 대종중회 제25차 정기총회에서 연임 되셨습니다. 홍성종 이사는 지난 6월 7일 열린 '봉오동전투 전승 102주년 기념식' 참가자들에게 고급 기념 타올을 기증하시는 등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의 발전을 위해서도 수고를 아끼지 않고 계십니다.



기림사업회 소식 06

카자흐스탄 고려극장,
“홍범도 고려극장”으로 명칭 변경 제안

카자흐스탄 고려극장 예술지도원이며, 전 극장장인 리 유보비치(69세) 여사가 7월 6일 우원식 이사장을 방문하고, 고려 극장의 이름을 “홍범도 고려극장”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극장 명칭에 역사적인 위인이나 영웅들의 명칭을 사용하는데, 고려극장은 창설 90주년을 맞아 “카자흐스탄 국립 아카데미 홍범도 고려 극장”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우원식 이사장은 고려극장은 1932년 창설 이래 연해주 독립운동의 구심점 이었고, 1937년 고려인 강제이주 후에도 민족의식을 선양하여 왔으므로, 극장 명칭 변경이 그런 역사성을 훼손하면 안 된다고 전제하고, 홍범도 장군 명칭 사용에 동의했습니다. 또한 내년이면 홍범도 장군 순국 80주년이 되는 해이므로, 고려극장 연극팀을 초청하여 1942년에 시연했던 “의병들”이라는 홍범도 장군 연극을 순회공연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기림사업회 소식 07

‘와썹와썹 자라게(Land of Hope)’ 관람



한국-카자흐스탄 수교 30주년을 맞아 6월 30일부터 8월 6일까지 중앙아시아 고려인 동포들의 이주 역사와 생활 상을 볼 수 있는 전시회가 서울 중구에 있는 'KF 갤러리'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중앙아시아 고려인 동포 들의 이주 역사를 볼 수 있는 생활용품, 서적, 증명서뿐만 아니라 연극 극본과 함께 카자흐스탄을 대표하는 문 빅토르 화가가 그린 홍범도 장군의 초상화도 전시되었습니다. 기념사업회에서는 7월 9일(토) 우원식 이사장을 비롯하여 10명의 회원들이 관람하였으며 봉사단체인 '애지모' 회원 30여명도 7월 2, 3주 두조로 나눠관람 예정입니다.

· 보내 주신 정성과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

임원 연회비 납부현황 (납부일 순, 6월 30일 기준)

문홍선 박준수 이경철 김용봉 최창석 홍용의 김성현 홍성종
홍이표 이행란 부윤경 채예진 김우진 박석봉 김용환 홍순계
황원섭 이명우 정광균 김 찬 최익훈 최 윤 문현군 송영운
이재호 홍재구 김중욱 홍성덕 우원식 오광영 안태호 변재용

임원명단

이 사 장 | 우원식 국회의원
명예 이사장 | 이종찬 우당기념관 원장
부 이 사 장 | 황원섭 신흥무관학교기념사업회 공동대표
감 사 사 | 박형상 변호사 / 前 서울중구청장
상 임 이 사 | 홍순계 前 IBK연금보험 상근감사위원
사 무 총 장 | 한동건 (주)태백자원개발 대표이사

신임이사

최옥수 무안군 상공인회 회장
오광영 전 대전시 의원
박점조 애지모 봉사단장
변재용 한솔교육 그룹회장
김선현 오토그룹 회장

이사

강호형 (주)COTTRELL 감사
김경호 前 주러시아 대사관 정무공사
김수송 (주)이음컴넷서비스 대표
김양진 BC카드 상임이사
김우진 K잡스 대표이사
김용환 前 한남대 부총장
김준목 (사)혁신경제 이사장
김진형 (사)벤처기업협회 상근부회장
김 찬 한국사학진흥재단 사무총장
김태원 NH 증권 부사장
김현권 前 국회의원
김현정 사무금융노조 위원장
김형상 조이 세무회계 대표
남인순 국회의원
노정래 前 (주)건화 감리CM본부 사장
류병균 평화전략연구소장
문현군 한국노총부위원장
박드미트리 P&TEC 농업조경법인 대표
박석봉 前 육사 교수부장
정보현 노원 소상공인협의회 감사
정수진 前 하나카드 대표이사
박완주 국회의원
부윤경 삼성경제연구소 부사장
서경석 현대건설 부사장
석순용 특허법인 신세기 대표

손광춘 건축업
안태호 한국전기감리협회 부회장
오세중 前 대한변리사회 회장
위성곤 국회의원
유 용 서울시 의원
유정배 前 대한석탄공사 사장
이경철 前 노원구 의회 의장
이명식 새마을운동중앙회 사무총장
이명우 평안남도 지사
이승중 네무스텍 대표
이재호 한국리싸이클링 대표
임태성 (재)서산복지재단 이사장
정광균 (주)미르나인 대표
정내하 (주)미네랄하우스대표
정수진 하나카드 자문위원
제종길 17대 국회의원
조승문 킨텍스 부사장
조태수 (주)다현커뮤니케이션즈 대표
채예진 대한고려인협회 부이사장
최 윤 E3플랜비 대표이사
최익훈 연세대 교수
최재용 법무법인 성현 대표변호사
한승관 대한변리사회 회원이사
한왕기 前 평창군수
홍성덕 前 주독일한국대사관 공사

CMS 회원 회비 입금현황 (가나다 순, 6월 30일 기준)

강도연 강미혜 강석령 강지연 강태영 계민경 고형오 구본길 구자룡 권석중
권영희 권재석 김거성 김경애 김관표 김다영 김대영 김대한 김도식 김미선A
김미선B 김미자 김민경 김사업 김석진 김선자 김성미 김성순 김성애 김성현
김신애 김양미 김영순 김옥찬 김용경 김우진 김윤미 김재현 김지현 김정식
김종철 김준수 김창관 김창환 김철순 김태원 김학필 김한백 김한의 김현수
나명현 나홍섭 노두섭 노용기 맹진규 문삼영 민기식 민병훈 박국진 박기수
박기호A 박기호B 박미혜 박상철 박선원 박성복 박은용 박점조 박조수 박준영
박지호 박태근 박형동 박혜리 방은정 배영실 배효연 백장현 서 민 서양원
석진경 석혜경 설정선 손여록 송국영 송정화 신동혁 신순봉 신승관 신관철
안선종 안영수 안영현 안태일 양달막 양민숙 양시모 엄기인 엄범용 여상연
오연근 우문식 유봉석 유정은 윤여각 윤진희 이기환 이길영 이대호 이명수
이병국 이병룡 이상걸 이상진 이성국 이성미 이수연 이순자 이승룡 이영란
이영희 이원정 이유헌 이윤기 이은영 이정원 이정화 이주열 이주용 이준호
이종달 이지련 이지선 이 진 이태준 이태훈 이행란 이현주 이형철 임현문
장승희 장영진 장현우 전광출 전부선 전중선 전형범 전홍기 정기일 정동준
정두영 정병훈 정성관 정용운 정윤미 정인택 정준수 정지국 정찬하 정현석
제성수 제옥평 조국환 조봉현 조영옥 조현재 지애숙 지영순 지에는 지현주
채인목 천상영 최성우 최원경 최재호 최향수 하기호 한영우 한재원 허양순
홍광기 홍영만 홍진표 홍정희 홍진표 홍희령 황덕순 황종섭 황희연
JINCHUNXING (사)한국마트협회 (주)비티에스웨스턴

홍성종 남양홍씨 남양군파대종중회 회장
홍의락 前 국회의원
홍이표 하이리빙 대표
홍재구 당정사적보존회 회장
홍종표 강동수산 대표이사
서정호 무주살림연구소 대표이사
엄윤상 법무법인 드림 대표 변호사
손영훈 지앤에이프라이빗에쿼티(유) 전무
송영운 더스페이스(주) 대표
정우기 청강문화산업대 교수
김종욱 한살림편당(주) 대표이사
유희태 일문구의사선양사업회 회장
한종관 서울시립대교수
위평량 前 서울신용보증재단 센터장
이상옥 前 국회의원(13대)
김용봉 한국빅데이터학회지도교수
오현석 한국주택금융공사 본부장
임의택 前 한국부동산연구원 원장
홍용의 (주)평화메탈 대표이사
김성현 SM그룹 전무
최창석 경영혁신연구원장
박준수 하남 스타트업 캠퍼스 센터장
문홍선 서울시 인재개발원장
이행란 애지모 대표

| 후원 안내 | 신한은행 100-027-188760 (사)여천홍범도 장군기념사업회

| 가입 문의 | 김현식 사무국장(02-784-3601)

| 홈페이지 | www.hongbumdo.org

